

KDB DAEWOO DAILY

2012. 12. 6 (목)

코스피지수 (12/5)	1,947.04P(+11.86P)
코스닥지수 (12/5)	496.50P(-6.21P)
KOSPI200지수 12월물	257.20P(+2.30P)
중국상해종합지수 (12/5)	2,031.91P(+56.77P)
NIKKEI225지수 (12/5)	9,468.84P(+36.38P)
원/달러 환율	1,081.50(-1.90)
국고채 수익률 (3년)	2.86(+0.02)
유가(WTI) (12/5 23:00)	87.72(-0.88)
국내주식형수익증권(12/4)	691,866억원(-1,115억원)
해외주식형수익증권(12/4)	266,512억원(-127억원)
고객예탁금(12/4)	176,410억원(-2,670억원)
신용잔고(12/4)	42,606억원(-319억원)

시황전망

부진한 고용과 미국자금 매수세의 의미

선물옵션 분석

12월 SP 전망: 정성적 순 매수 우위로 제한적 상승

산업분석

기계[중립] - 성기종: 과도한 시총 차이, 달라진 것은 없다

주체별 매매동향

KOSPI200 선물시장 통계

주가 지표

투자전략 한치환 02-768-3053 chihwan.han@dwsec.com

투자전략 노아람 02-768-4153 aram.noh@dwsec.com

부진한 고용과 미국자금 매수세의 의미

금주 후반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11월 고용지표에 대한 현재 시장의 예상치는 긍정적이지 못하다. 고용이 소비와 기업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부진의 지속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는 12월 이후에는 회복세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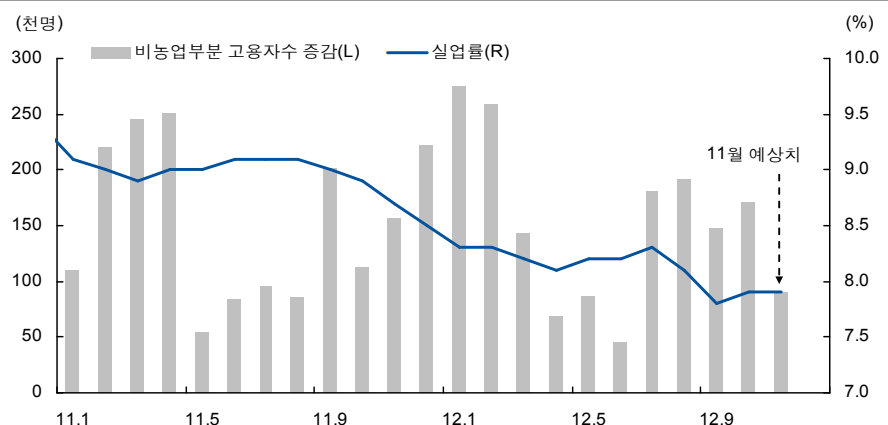
12월 이후 고용지표의 회복세가 예상되는 이유는 지난 10월 실업률이 7.9%로 전월에 비해 다소 상승했지만 구직 단념자 등을 고려한 U6실업률은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고, 주간 단위로 발표되는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는 11월 둘째 주 이후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재정절벽 합의에 대한 기대감도 주목할 만하다. 아직은 논의가 지지부진하지만 궁극적으로 재정절벽이 현실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그 동안 위축된 기업들의 설비투자는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동시에 고용의 회복도 기대할 수 있다.

연말 소비시즌 동안의 소비증가 역시 고무적이다. 전미소매협회(NRF)에 따르면 올해 Holiday Season의 소매판매액(5,910억 달러)은 예상치(5,861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Holiday Season 이전에 제기되었던 소비 부진에 대한 우려를 희석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고용 확대를 이끄는 요인이 될 것이다.

고용지표가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에도 미국계 자금을 중심으로 외국인 매수세의 유입이 예상된다. 지수 측면에서도 하방 경직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비농업부분 고용지수 증감 및 실업률 추이



자료: Bloomberg,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미국 11월 고용지표에 대한 전망은 부정적. 12월 이후에는 회복세가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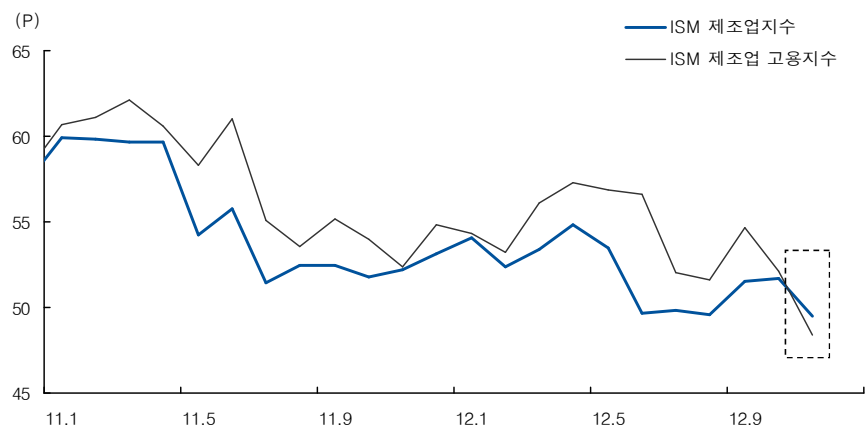
미국의 11월 고용지표에 대한 전망은 부정적

금주 후반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11월 고용지표에 대한 현재 시장의 예상치는 긍정적이지 못하다. 고용이 소비와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부진의 지속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는 12월 이후에는 회복세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최근 발표된 11월 ISM 제조업지수는 2009년 7월 이래 최저치를 나타냈는데, 구성 항목 별로 봤을 때 재고 및 주문이 감소한 가운데 고용 역시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는 허리 캐인 샌디의 여파와 더불어 대선을 전후로 재정절벽 논쟁이 격화되면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와 고용에 나서고 있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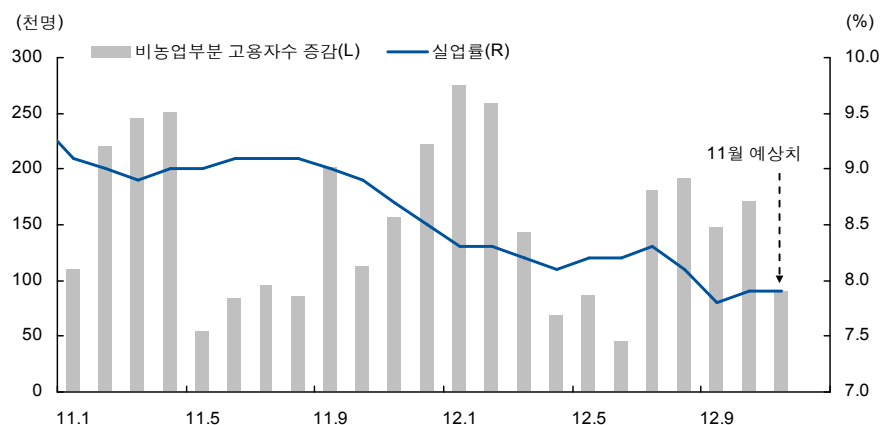
비농업부문 신규 고용자수는 9만 명 증가가 예상되는데, 지난 달 17.1만 명에 큰 폭으로 줄어든 수치이다. 실업률의 경우 이전치와 동일한 7.9%로 나타날 전망이다.

그림 1. ISM 제조업 지수 및 ISM 제조업 고용지수



자료: Institute of Supply Management,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비농업부문 고용자수 증감 및 실업률 추이



자료: Bloomberg,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향후 고용지표의 회복 가능성은 점증

U6실업률,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가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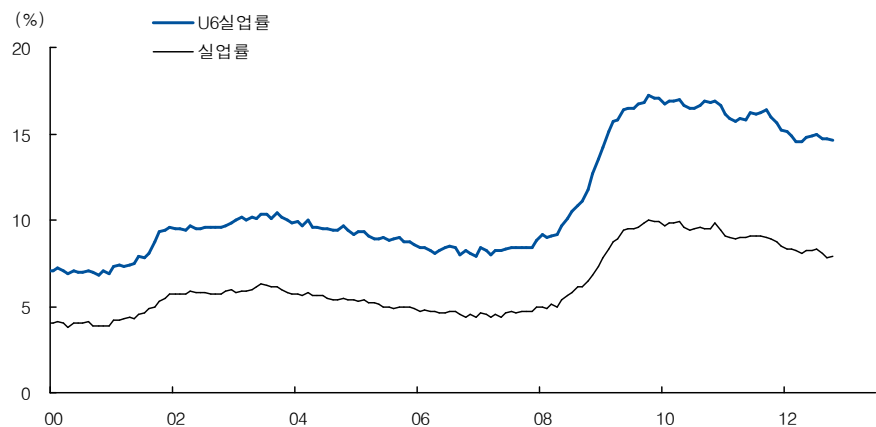
향후 고용지표의 회복 가능성은 점증. 11월의 부진이 큰 충격이 되지는 않을 전망

11월 주요 고용지표가 다소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이후 추가적인 고용악화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지나친 우려는 불필요해 보인다.

지난 10월 실업률이 7.9%로 전월에 비해 다소 상승했지만, 구직 단념자 등을 고려한 U6실업률은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2009년 10월 실업률과 U6실업률이 각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U6실업률의 감소폭은 2.6%p로 실업률의 감소폭 2.1%p보다 더 크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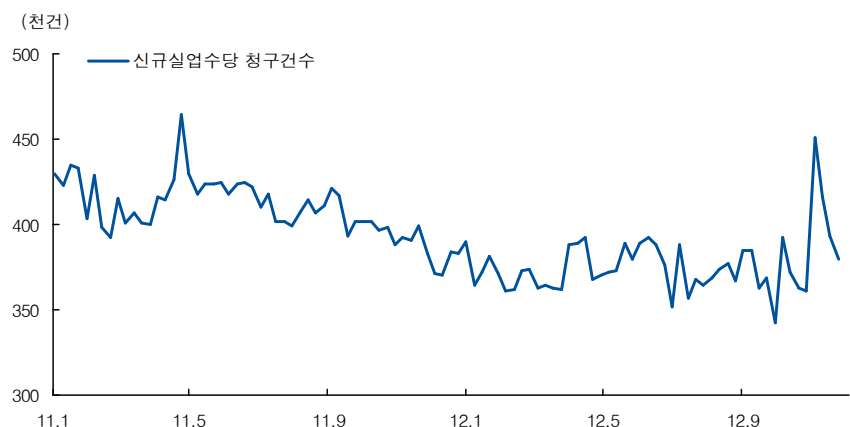
주간 단위로 발표되는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는 11월 둘째 주 이후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 점 역시 향후 고용의 추가적인 둔화 가능성을 낮추는 요소로 판단된다.

그림 3. 실업률(U3)과 U6실업률



주: U6실업률은 구직 단념자와 한계 근로자(1년간 구직을 희망한 자), 불완전 취업자(시간제 근로자 중 정규직 희망자)를 포함하는 지표
자료: Bloomberg,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추이



자료: Bloomberg,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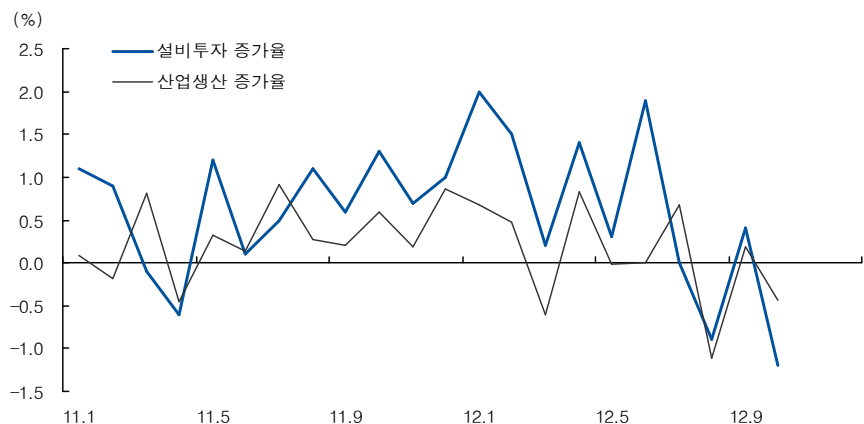
미국 재정절벽 합의에 대한
기대감 및 연말 소비시즌 동안의
소비증가도 고용지표의 회복에
긍정적

미국 재정절벽 합의에 대한 기대감도 주목할 만하다. 아직은 논의가 지지부진하지만, 궁극적으로 재정절벽이 현실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그 동안 위축된 기업들의 설비투자는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동시에 고용의 회복도 기대할 수 있다.

연말 소비시즌 동안의 소비증가 역시 고무적이다. 전미소매협회(NRF)에 따르면 올해 Holiday Season의 소매판매액(5,910억 달러)은 예상치(5,861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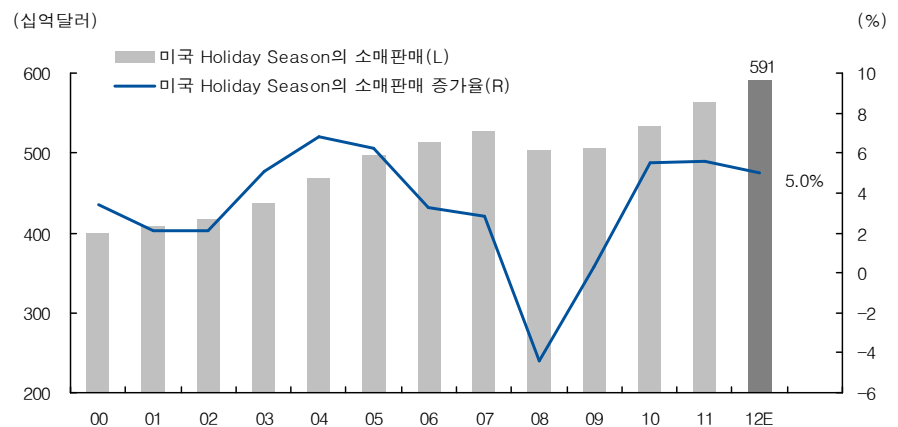
증가율 측면에서도 2001년 이후의 평균치보다도 높은 수치를 기록하면서 Holiday Season 이전에 제기되었던 소비 부진에 대한 우려를 희석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향후 예상되는 재정절벽 우려의 완화와 더불어 기업들의 투자회복을 이끌고 고용 확대를 이끄는 선순환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판단된다.

그림 5. 미국 설비투자 및 산업생산 전월대비 증가율



자료: Bloomberg,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6. 미국 Holiday Season 동안의 소매판매액 및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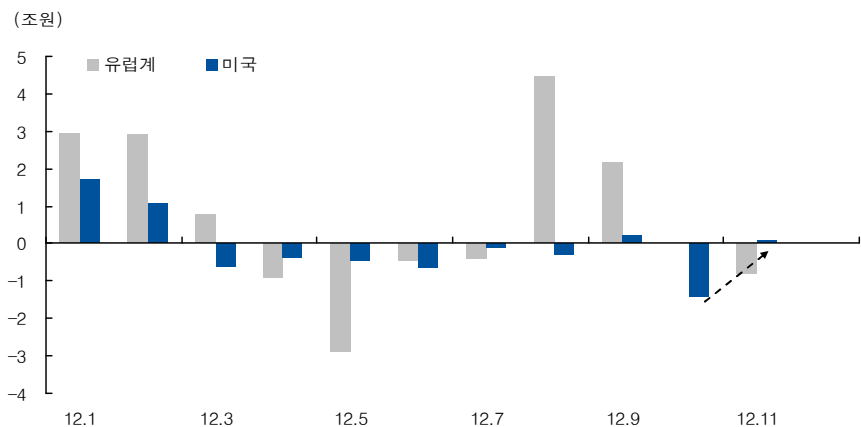


자료: NRF,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미국계 자금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매수세 유입을 기대****지수 측면에서도 하방 경직성이
높아질 것****외국인 매수세 개선 기대**

지난 11월 유럽 국적의 자금은 여전히 한국 증시에서 매도세를 나타냈지만, 미국계 자금은 순매수를 기록했다. 그 폭은 크지 않지만, 지난 11월 증시를 둘러싼 환경과 미국과 한국 증시의 흐름을 봤을 때, 뚜렷하게 매수세를 기대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볼 때, 향후 동 환경들의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12월 들어 외국인은 5천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지난 11월 순매도를 만회하고 있다. 11월은 다소 부진하더라도 이후의 고용지표가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에도 미국계 자금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매수세 유입은 기대할 만하다고 판단된다. 지수 측면에서도 하방 경직성을 높여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림 7. 미국계 및 유럽계 자금 유출입

자료: 금융감독원,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12월 SP 전망: 정성적 순 매수 우위로 제한적 상승

SP 동향: -1.10p에서 반등하여 -0.90p 도달. 외국인 순 매도 누적 복귀

최저 -1.10p(11월 21일)에서 반등하여 현재 -0.90p에 도달. 일별 거래량은 직전 5일 평균으로 1,119계약에 불과. 누적된 SP 거래량은 21,101계약이며, 52.8%는 단기 SP 투기, 나머지 47.2%는 중기 SP 투기 혹은 조기 롤-오버 수요

거래소 SP 이론가는 -0.79p. 당사 배당 추정치 사용시 기관 -1.28p, LIBOR+1%로 가정한다면 외국인은 -2.00p. 따라서, 실제로 현재 SP 시장가는 고 평가 상태. 만기일까지 SP 시장가가 급락하지 않는 이상, 이론적으로 매수 차익잔고는 전량 롤-오버

외국인 SP 매매 비중은 81.7%. 현재 -1,014계약 순 매도 반면, 증권과 개인은 각각 +840, +134계약을 순 매수. 거래량 증가, 차근월물 미결제 증가와 함께 순 매도 반전해 롤-오버 시작된 듯. 직전 9월 비하면 아직 SP 매매 진행률은 15%에 불과

SP 전망: 외국인 SP 매수 수요 여전해 상승할 것. 단, 상승 폭은 다소 제한될 수도

직전 9월 만기 외국인 SP 순 매도 불구, SP 시장가는 오히려 +0.46p나 상승. 원인은 투신 SP 대량 순 매수 지속에다 외국인이 정량적으로는 순 매도 우위였지만 정성적으로는 거의 균형 상태였기 때문. 이는 매수 수요가 체결을 주도했기 때문

선물 외국인은 9월 만기일 이후 -2,891계약 순 매도, +6,508억 원 차익거래 제외한 투기/헤지 기준으로는 +1,559계약의 순 매수. 결국 차익 PR 순 매수에 따라 SP 매도 늘어날 수 있지만, 투기/헤지성 SP 매수 역시 늘어 SP 순 매도 증가는 제한될 것

투신 인덱스 펀드(ETF 포함) 역시 9월 만기 이후 선물 +4,486억 원 증가. 단, 선물 및 SP 고 평가 감안하면 조기/만기 청산 가능해 SP 매수 증가 제한적. 결국, 9월에 비해 'SP 수급의 정성적 순 매수 우위'는 다소나마 약화, 만기 주간 SP 상승 폭 제한

※ 본 자료는 2012년 12월 6일에 발간된 선물옵션 매물 '12-3 SP 전망: 문제는 양이 아니라 질'의 내용을 발췌/요약한 것. 보다 자세한 사항은 원문을 참조할 것(KDB 대우증권 홈페이지 참조)

Introduction

금일부터 SP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본격적인 12월 만기 시즌이 시작될 예정이다. 물론, 외국인의 SP 순 매도 누적은 이어지겠지만 직전 9월 만기의 교훈에 따르면 더 이상 정량적인 순 매도 우위는 중요하지 않다. 그 보다는 정성적 측면에서 SP 매수 수요의 증감이 관건이다.

외국인 차익 PR 순 매수에 따라 SP 매도가 늘어날 예정이나, 덩달아 투기/헤지성 매수 역시 늘었기 때문에 이 쪽의 균형은 크게 흐트러지지 않을 것이다. 다만, SP 고 평가에 따라 투신의 선물 매수 포지션이 청산된다면 SP 매수 감소로 9월에 비해서는 정성적 순 매수 우위가 약화될 수 있다. 결국, SP는 상승하겠지만 그 폭은 제한될 전망이다.

SP 동향: -1.10p에서 반등하여 -0.90p 도달. 외국인 순 매도 누적 복귀

SP 거래는 아직까지 한산한 편. 53%는 단기 투기, 47%는 중기 투기 혹은 롤-오버 수요

SP 시장가는 -0.90p. 거래량은 5MA로 1119계약. 아직 본격적인 만기 시즌에 돌입하지 않아

-0.85p 주변을 등락하던 12-3 SP 시장가는 11월 14일부터 거래량이 다소 늘어나면서 하락하여 최저 -1.10p(11월 21일)를 기록했으나 이내 반등하여 현재 -0.90p에 도달한 상태다. 일별 거래량은 직전 5일 평균으로 1,119계약에 불과해 아직은 본격적인 만기 시즌에 돌입하지 않은 모습이다<그림 1 참조>.

현재까지 누적된 SP 거래량은 21,101계약으로 직전 월물 동기에 비해서는 +4,068계약 가량 많았다. 또한, SP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한 직후, 11월 19일부터 차근월물 미결제 증가가 가속되기 시작했는데, 기중 거래량은 +11,938계약, 차근월물 미결제는 +5,629계약 늘었기 때문에 52.8%는 '단기 SP 투기 매매'였으며 나머지 47.2%가 '중기 SP 투기 매매 누적' 혹은 '조기 롤-오버 수요'로 추측된다.

SP 매매의 52.8%는 단기 SP 투기, 나머지 47.2%는 중기 SP 투기 혹은 조기 롤-오버

한편, 차근월물 미결제는 11,225계약으로 전월물 동기 대비 -377계약 모자란 수준이다. 요컨대, SP 거래량은 전월물에 비해 다소 많지만 롤-오버 속도가 크게 빠르지는 않은 셈이다<그림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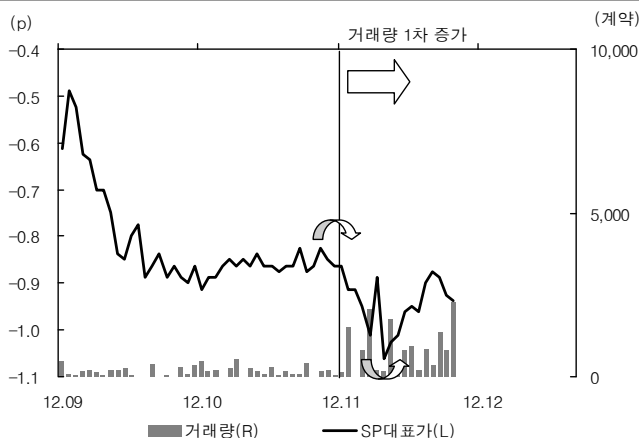
SP 시장가는 사실상 +0.38p 이상 고 평가 상태. 외국인 매수 차익잔고는 롤-오버 유력

거래소의 배당액 현가 지수(2.62p)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CD91일물 금리를 적용한 거래소의 SP 이론가는 -0.79p, 콜 금리를 적용한 이론가는 -0.86p이므로 현재 -0.90p의 SP 시장가는 소폭 저 평가된 상태다.

당사 배당 추정치 사용시 SP 이론가는 국내 기관 -1.28p, 외국인 -2.00p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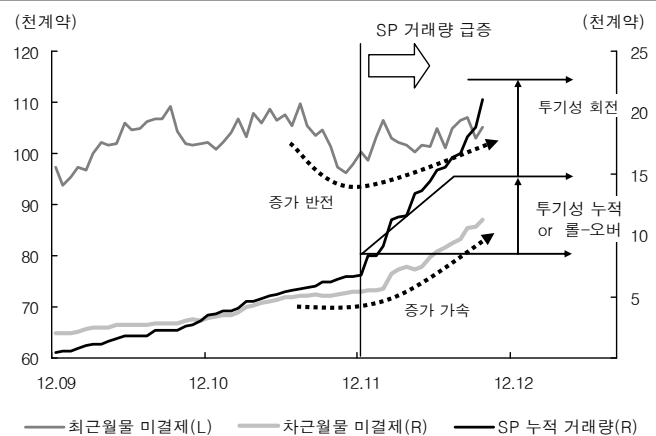
그러나, 당사가 추정한 배당액 현가 지수(2.97p)를 적용한다면 이론가는 -1.28p(배당 조정 및 콜 금리 적용)로 하향 조정되므로 사실 SP 시장가는 +0.38p 가량 고 평가되었다고 봐야 한다. 게다가 외국인의 경우, 조달금리를 LIBOR+1%로 가정한다면 SP 이론가는 -2.00p로 대폭 하향 조정된다<그림 3 참조>.

그림 1. 12-3 SP, 거래 증가와 함께 급락했다가 반등해 -0.90p 도달



주: 대표가는 일별 시, 고, 저, 종의 단순 평균
자료: KRX, 증권전산,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SP 거래 가속의 47%는 3월물 미결제 증가로 연결. 롤-오버?



주: 누적 거래량은 일별 거래량의 단순 누적
자료: KRX, 증권전산,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만기일 외국인 매수 차익잔고는 이론상 롤-오버 유력. 단, 신규 진입은 무리

거래량 증가와 함께 외국인 SP 순 매도 누적 시작. 롤-오버 시작한 듯

결국¹, 만기일까지 SP 시장가가 -2.00p를 크게 하회하지 않는 이상, ‘이론적’으로 역사상 최대 규모인 이들의 매수 차익잔고는 폭발할 가능성이 전무(全無)한 셈이다.²

외국인 SP 매매 비중 82%. 거래량 증가와 함께 SP 순 매도 반전. 진행률은 15% 불과

주체 별로 살펴보면 여전히 외국인의 매매가 가장 활발했는데(비중 81.7%), 이들은 현재 -1,014계약을 순 매도한 반면, 증권과 개인은 각각 +840, +134계약을 순 매수했다<표 1 참조>.

외국인은 SP 거래량이 증가하기 전까지 최대 +1,608계약을 순 매수하기도 했으나, 이후부터 급격하게 순 매도로 돌아섰다. 기존의 미결제 증가를 감안하면 일부 매도 포지션의 롤-오버가 시작된 셈이다. 직전 9월에 비하면 아직 이들의 SP 매매 진행률은 15%에 불과하다<그림 4 참조>.

표 1. 주체별 SP 매매 동향

(단위: 계약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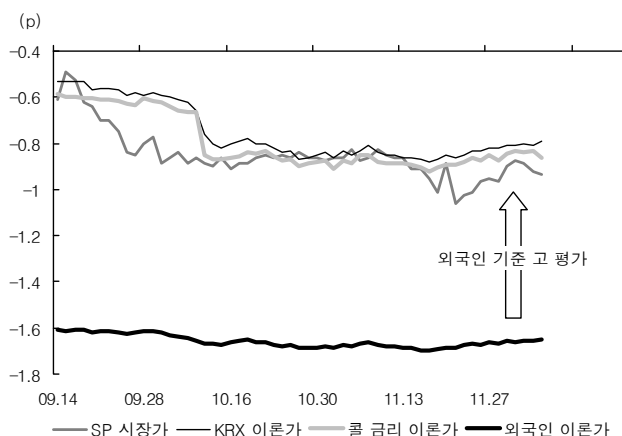
구분		외인	투신	보험	국가	증권	은행	개인	전체 합
9월	매수	101,875	23,921	4,895	2,226	8,890	223	5,753	148,081
	매도	122,530	5,575	1,379	1,414	10,018	659	6,370	148,082
	순매수	-20,655	18,346	3,516	812	-1,128	-436	-617	-1
12월	매수	16,490	35	0	30	1,202	30	3,053	20,840
	매도	17,561	31	0	0	361	0	2,888	20,840
	순매수	-1,014	-21	0	30	840	30	134	0
진행	매수	16%	0%	0%	1%	14%	13%	53%	14%
	매도	14%	1%	0%	0%	4%	0%	45%	14%

주: 1) 9월은 6월 만기 직후부터 9월 만기일까지 누적, 12월은 12월 6일까지 누적

2) 진행률은 12월 6일까지 누적된 SP 매매를 '9월 SP 매매'로 나눈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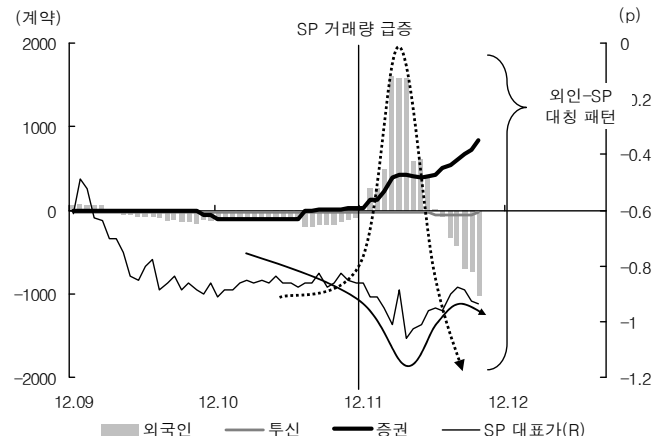
자료: 증권전산,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 외국인 기준으로 SP 시장가는 +0.71p 이상 고 평가된 상태



주: 배당액 현재 지수는 거래소 수치 적용. 외국인 이론가는 금리 1.5% 적용
자료: KRX, 증권전산,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 외국인, 거래량 증가와 함께 SP 순 매도로 반전



주: 일별 SP 순 매수의 단순 누적
자료: KRX, 증권전산,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¹ 손재현, '연말 배당 추정을 통한 SP 이론가의 수정', 지수선물시장 이슈분석, 2012. 11. 27

² 다만, 이론으로 설명되지 않는 청산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 자금 운용 만기 도래에 따른 이탈 가능성과 환 차익 실현을 위한 국내 증시 이탈 가능성 등이 그것이다. 보다 자세한 것은 내주 발간되는 만기 전망에서 언급할 예정이다.

SP 전망: 외국인 SP 매수 수요 여전해 상승할 것. 단, 상승 폭은 다소 제한될 수도

현재 SP는 K200지수+개인 매매에 따라 등락. 단, 만기 근접하면 수급 모멘텀 작동할 것

현재까지 SP 시장가의 등락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K200지수와 개인 SP 매매였다. 아직까지 SP 시장가는 수급에 의해 드라이브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만기일에 근접할수록 투기와 롤-오버의 수급 균형에 따라 SP의 방향 설정될 것이다<그림 5 참조>.

9월 만기에 외국인 SP 순 매도 불구하고, SP 시장가는 만기 주간에 꾸준히 상승

**9월 만기에는 외국인 SP 순
매매가 SP 시장가 움직임
설명할 수 없어**

만기 주간, SP 전망의 실마리는 직전 9월 만기에서 찾을 수 있다. 당시에 외국인의 SP 순 매도가 꾸준히 누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SP 시장가는 오히려 대표가(시고저중 평균) 기준으로 +0.46p나 상승했다. 수급 측면에서 ‘SP 시장가의 움직임은 가장 비중이 높은 외국인이 좌우한다’는 고정 관념이 보기 좋게 빗나간 것이다<그림 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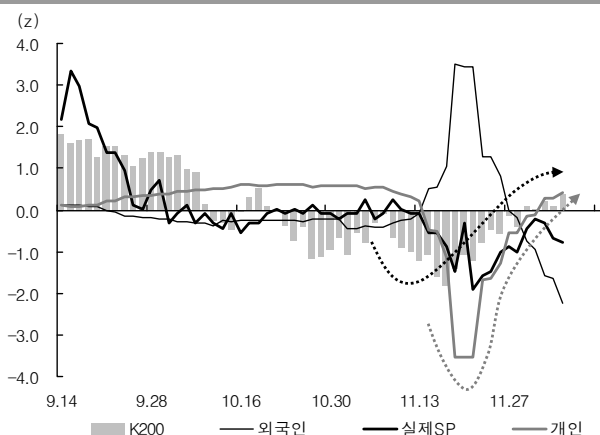
물론, 6월 만기부터 투신의 SP 순 매수가 +18,000계약으로 급증했기 때문에 외국인 내 부적으로 SP 매수와 SP 매도가 충돌하여 균형을 이룬 상태에서 투신이 캐스팅 보트로 작용했다는 논리도 가능하지만, -20,000계약을 상회하는 외국인의 순 매도 우위가 균형 상태였다는 것은 ‘정량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포인트: 외국인 내부의 정성적
수급 균형 + 투신의 SP 순 매수
수요 급증**

따라서, 답은 ‘정성적인 것’에서 찾을 수 밖에 없다. 즉, 외국인 내부적으로 롤-오버 수요는 SP 매도가 많았지만, 체결을 주도한 쪽은 SP 매수였다는 얘기다. 외국인 SP 매도의 상당 부분은 매수 차익잔고의 롤-오버 수요이며, SP 매수 쪽은 ELS 헤지, 현물 대체 매수 및 장기 투기 수요 등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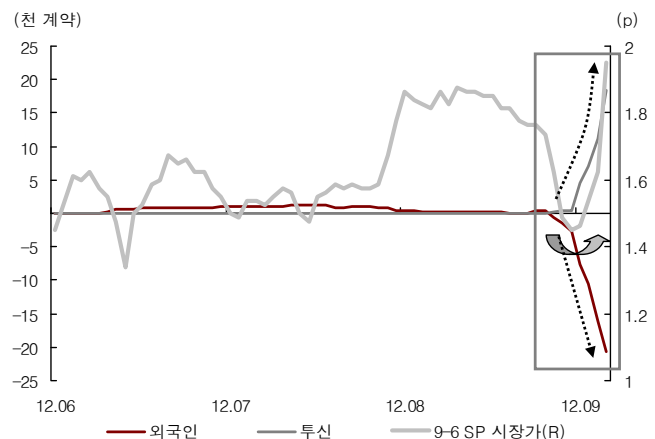
여기서 매수 차익잔고는 만기 청산과 만기 이연(roll-over) 등 2가지 선택이 존재하므로 SP 매도 체결에 수동적인 반면, ELS/ELW 헤지, 현물 대체 매수, 장기 투기 등은 롤-오버 이외에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만기에 근접할수록 적극적으로 SP 매수 체결에 나설 수 밖에 없다.

그림 5. SP 시장가 반등은 지수 반등과 개인 SP 순 매수 반전이 설명



주: 상이한 시계열의 비교를 위해 모든 시계열을 정규화(normalization)하였음
자료: KRX, 증권전산,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6. 9월 만기 주간의 SP 상승은 투신 SP 순 매수가 설명?



주: 일별 SP 순 매수의 단순 누적
자료: KRX, 증권전산,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포인트 1: 정성적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외국인 SP 순 매도의 급증 여부

외인 SP 매도, 투신 SP 매수 모두 소폭 증가. 정성적 순 매수 우위는 유지될 것

상기 논리에 따르면, 9월 만기 이후부터 지금까지 ① 외국인의 SP 매수 수요가 급감하거나 ② SP 매도 수요가 급증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③ 투신의 SP 매수 수요가 급감하지 않는다면 SP 시장가는 다시 한번 막판에 상승 압력을 받을 것이라 결론에 이른다. 그리고, 이러한 수요 변화의 가능성은 기중 이들의 선물 매매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

먼저 외국인은 9월 만기일 이후부터 전일까지 종가 기준으로 -2,891계약의 순 매도했으며, +6,508억 원의 차익거래를 제외한 투기/헤지 기준으로는 +1,559계약의 순 매수 누적이었다. 기중에 미결제가가 줄었다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신규매도→환매→신규매수의 과정이 유력하다<그림 7 참조>.

결국 차익 PR 순 매수에 따라 SP 매도 수요가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은 있지만, 투기/헤지성 SP 매수 수요 역시 늘었기 때문에 SP 순 매도의 증가는 제한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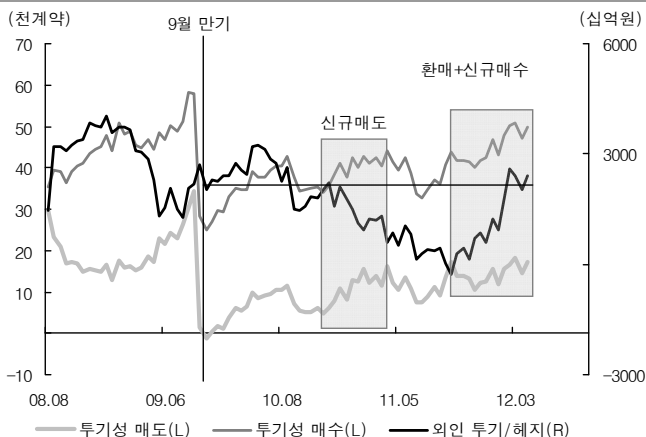
포인트 2: 투신 SP 순 매수 수요의 증감 여부

한편, 투신 인덱스 펀드(ETF 포함)는 9월 만기 이후로 선물 보유 금액이 재차 +4,486억 원 늘어난 상태다. 대칭적으로 주식 보유 금액이 줄어든 점을 감안하면 인덱스 스위칭 매도 진입으로 추정된다. 만일 이 물량이 만기일까지 청산되지 않는다면 투신의 SP 순 매수는 그만큼 늘어나겠지만, 현재 선물 괴리차가 고 평가로 반전된 점이나 SP가 사실상 고 평가 상태라는 점을 감안하면 조기 청산이나 만기 청산을 통해 다소간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그림 8 참조>.

결론적으로, 외국인의 SP 순 매도와 투신의 SP 순 매수 모두 늘어나겠지만 상대적으로 외국인 순 매도의 증가 폭이 클 것이므로 9월에 비해서 'SP 공급의 정성적 순 매수 우위'는 다소나마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즉, 직전에 비해 만기 주간의 SP 상승 폭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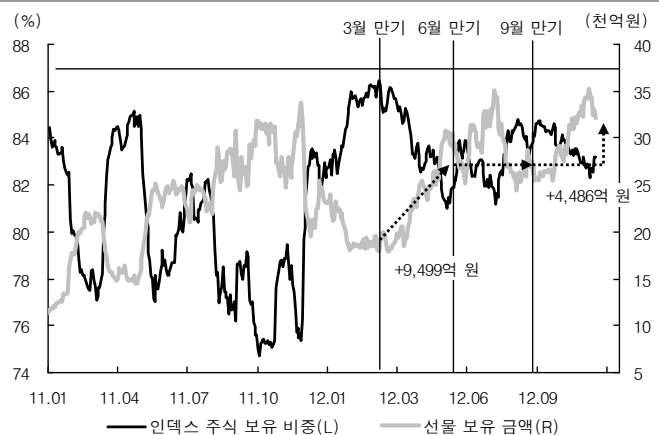
SP 매수 수요라면 향후 SP 시장가 상승에 대비해 체결을 서둘러야 할 것이며, SP 매도 수요라면 목표 체결 가격을 다소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7. 선물 외인, 순 매도 누적은 거의 역 회전 완료된 상태



주: 투기성 매수/매도 미결제 = 전체 미결제 - 차익성 매수/매도 미결제
자료: KRX, 증권전산,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8. 투신, 스위칭 매도 늘어 선물 보유 금액은 3.2조 원 달해



주: 선물 보유 금액 = 전체 주식 - 주식 현물
자료: 한국펀드평가, KRX, 증권전산,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기계 (중립)

과도한 시총 차이, 달라진 것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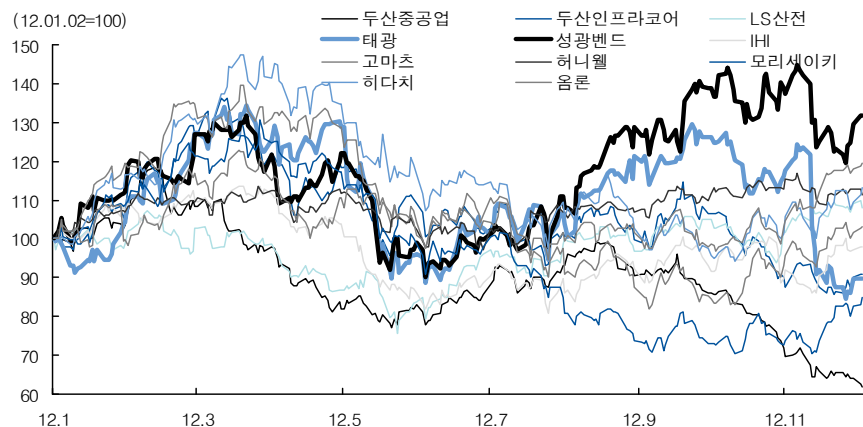
변함이 없는 양대 피팅 업체들의 펀더멘털

태광의 3분기 예상보다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이후 성광벤드와 태광의 주가는 각각 15%, 25% 이상 하락했다. 그러나 이는 일회성 이슈일 뿐 여전히 양사의 펀더멘털에는 변함이 없다는 결론이다. 큰 관점에서 글로벌 위기에 따른 유럽 경쟁업체들의 위축, 경쟁력 저하와 피팅산업의 공급부족 상황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국내 업체들의 인지도와 경쟁력은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 산업플랜트 투자는 고유가 상황 지속에 따라 향후에도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중 피팅, 벨브 등 부품사들의 수혜가 가장 클 전망이다. 이는 글로벌 위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기계업 내의 업체간 주가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하단 차트 참조) 특히 안정적인 성장성과 수익성을 겸비한 태광과 성광벤드가 상대적으로 가장 돋보이는 추이를 보여줬다.

양사간의 과도한 시가총액 차이: 합당하지 못한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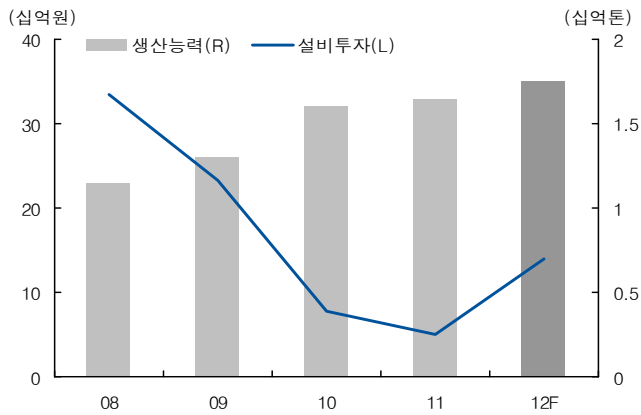
지난 상반기에 발생했던 태광의 기납품물량 재처리 과정으로 인한 여파가 3분기 실적으로 이어지면서 동사의 주가는 크게 하락하였다. 고수익성 단납기 물량 수주 실패와 일회성 비용의 영향이 작용된 것으로 보이고, 4분기까지 실적은 상대적으로 부진할 전망이다. 그러나 추가 증설 완료 후 매출 증대와 단납기 수주 재개, 제품 mix 개선을 통한 수익성 개선으로 내년 1분기 이후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동사의 시가총액은 성광벤드의 70% 수준으로, 실제 상황에 비해 합당하지 못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생산자 우위의 시장 상황과, 늦어도 내년 1분기부터 본격화될 설비증설 효과 등 각종 호재성 요인들은 양사 모두에 해당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 1. 주요 기계업체들 상대 주가 추이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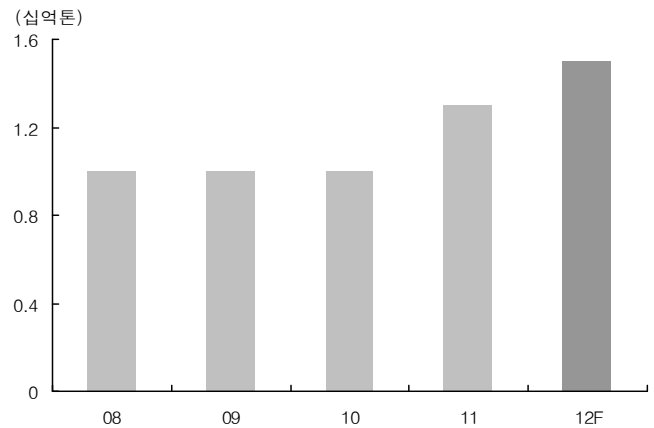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태광 설비투자 및 생산능력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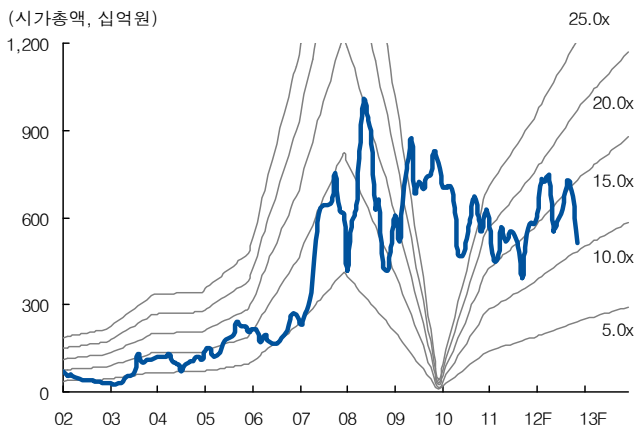
자료: 태광,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 성광벤드 생산능력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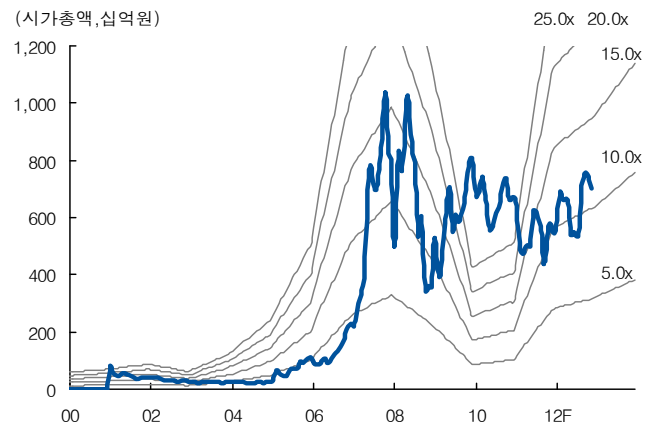
자료: 성광벤드,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 태광 P/E 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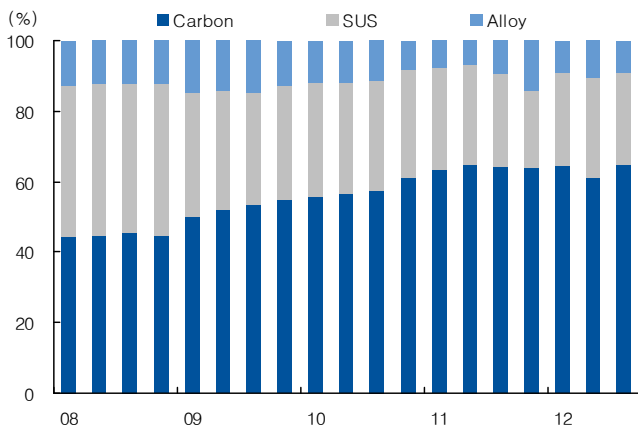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5. 성광벤드 P/E 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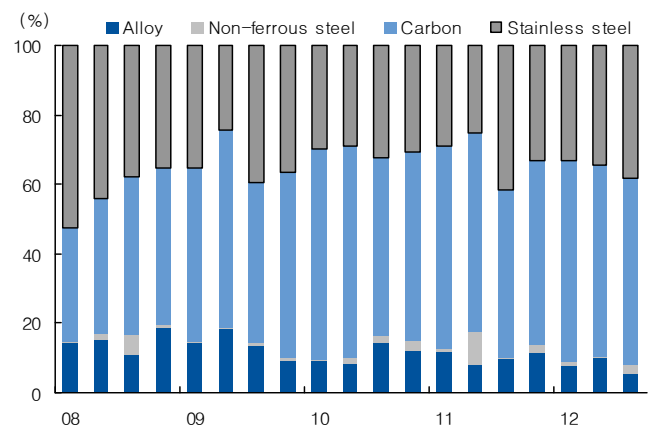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6. 태광 소재별 매출 비중 추이



자료: 태광,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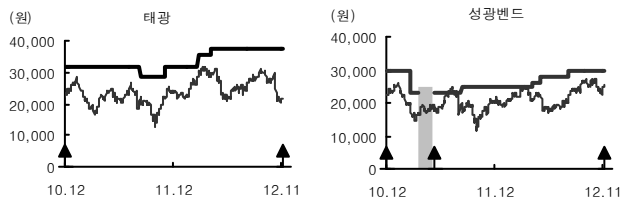
그림 7. 성광벤드 소재별 매출 비중 추이



자료: 태광,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회사와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함.
-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로,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함.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함.
- 투자 의견 분류 및 적용기준 (시장대비 상대이익 기준, 주가(—), 목표주가(==), Not covered(☐))
▲매수(20% 이상), ■Trading Buy(10% 이상 예상되나 주가에 영향을 주는 변수의 불확실성이 높은 경우), ●중립(±10% 등락), ◆비중축소(10% 이상 하락)



KOSPI 기관 및 외국인 순매매 상/하위 업종 및 종목

(단위: 억원)

국내기관 (업종)			기관전체 (당일 807.4 / 5일 2337.1)			외국인 (업종)			외국인전체 (당일 1368.0 / 5일 2416.8)		
순매매 상위	금액	5일	순매매 하위	금액	5일	순매매 상위	금액	5일	순매매 하위	금액	5일
운수장비	282.5	2,493.6	서비스업	-203.7	210.8	전기전자	794.7	645.3	통신업	-168.5	185.9
통신업	213.3	-171.0	전기전자	-189.8	-1,033.6	금융업	266.1	441.1	음식료	-108.3	-102.0
운수창고	196.9	-409.3	건설업	-75.0	451.4	운수창고	222.5	288.0	의약품	-64.9	61.0
음식료	182.4	-0.3	금융업	-52.9	38.4	화학	185.0	23.7	유통업	-26.4	-403.1
유통업	175.2	226.6	은행	-8.0	105.1	서비스업	84.7	514.5	철강금속	-20.5	-278.1
국내기관 (종목)						외국인 (종목)					
순매수	금액	5일	순매도	금액	5일	순매수	금액	5일	순매도	금액	5일
KODEX레버리지	353.1	1,048.3	KODEX 인버스	-255.3	-288.9	삼성전자	773.7	-854.6	SK하이닉스	-111.8	-86.9
CJ대한통운	231.9	58.9	NHN	-205.9	104.2	CJ대한통운	231.4	-40.7	현대차	-106.6	-420.7
한국타이어	144.7	273.2	LG전자	-181.2	-405.5	기아차	155.1	658.3	KT	-100.9	165.4
SK하이닉스	133.1	-502.5	삼성전자	-156.6	263.9	삼성엔지니어링	125.8	312.8	LG유플러스	-59.7	-72.2
현대차	118.0	1,027.4	LG화학	-133.4	249.0	KB금융	95.9	-135.1	삼성중공업	-46.1	198.4
CJ	108.9	-30.1	KB금융	-86.3	137.7	삼성전기	94.3	545.4	NHN	-41.2	-120.9
LG디스플레이	107.1	-260.2	엔씨소프트	-81.6	-34.9	LG화학	69.6	82.1	오리온	-41.1	-28.4
삼성중공업	105.3	398.1	기아차	-62.0	530.9	하나금융지주	68.7	474.9	삼성테크윈	-40.0	42.1
삼성물산	93.3	73.0	삼성SDI	-54.4	-108.2	현대모비스	64.0	-472.1	아모레퍼시픽	-37.8	-86.2
제일기획	85.6	-79.6	삼성엔지니어링	-51.1	65.3	우리금융	57.0	59.2	강원랜드	-35.6	76.9

KOSDAQ 기관 및 외국인 순매매 상/하위 업종 및 종목

(단위: 억원)

국내기관 (업종)			기관전체 (당일 -250.9 / 5일 129.7)			외국인 (업종)			외국인전체 (당일 -152.1 / 5일 193.8)		
순매매 상위	금액	5일	순매매 하위	금액	5일	순매매 상위	금액	5일	순매매 하위	금액	5일
제약	34.1	66.4	디지털컨텐츠	-223.1	-245.1	인터넷	26.2	38.4	디지털컨텐츠	-63.4	-59.0
반도체	29.5	46.0	오락.문화	-67.6	45.7	의료.정밀기기	17.0	86.0	IT부품	-53.7	108.6
통신서비스	25.2	25.7	IT부품	-65.7	34.4	화학	12.0	23.0	제약	-29.4	-136.5
통신방송	24.8	33.6	소프트웨어	-41.1	59.9	컴퓨터서비스	11.7	5.8	기타	-20.4	32.3
음식료.담배	18.9	-8.6	화학	-7.3	-28.2	기계.장비	11.0	0.7	오락.문화	-20.2	27.4
국내기관 (종목)						외국인 (종목)					
순매수	금액	5일	순매도	금액	5일	순매수	금액	5일	순매도	금액	5일
서울반도체	53.3	83.5	컴투스	-93.8	-151.7	오스템임플란트	30.2	12.6	네오위즈게임즈	-76.0	11.6
셀트리온	27.0	114.5	파라다이스	-86.0	-112.5	다음	29.4	38.4	아바텍	-14.3	-4.2
골프존	26.7	37.9	게임빌	-53.3	-95.0	슈프리마	16.7	-4.1	SBS콘텐츠허브	-13.3	-9.4
SK브로드밴드	25.3	19.0	KG이니시스	-42.5	1.8	EG	15.2	-32.1	안랩	-12.1	-60.5
SBS콘텐츠허브	18.1	9.6	위메이드	-26.2	0.7	에스에프에이	15.1	10.5	메디톡스	-11.9	-4.3
매일유업	17.3	-5.9	JCE	-25.9	-4.0	덕산하이메탈	15.1	14.9	멜파스	-10.8	39.4
CJ오쇼핑	15.3	1.3	씨젠	-23.7	-24.9	게임빌	14.3	-14.5	네오위즈	-7.5	-1.7
와이즈엔터테인먼트	14.0	94.4	네오위즈인터넷	-22.8	-1.4	이엘케이	12.6	-61.2	위메이드	-6.7	-4.1
메디톡스	12.8	6.2	이옴텍	-21.8	-40.0	CJ오쇼핑	12.2	25.2	인탑스	-6.7	-10.6
성우하이텍	12.6	48.7	엔텔스	-16.3	0.8	하츠	11.1	2.7	GS홈쇼핑	-6.5	-6.5

※ 본 자료 중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이며, 그 밖의 외국인은 제외되어 있음

※ 5일: 증권전산 CHECK 기준 (당일 제외, 이전 최근 5일), 당일 금액과 5일에서 (-)는 순매도를 의미

KOSPI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종목

(단위: 백만원)

투신				연기금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CJ대한통운	8,132.6	삼성전자	-16,671.3	삼성전자	21,357.9	LG전자	-16,650.5
호남석유	6,834.2	NHN	-9,050.7	LG디스플레이	13,943.3	LG화학	-12,985.7
삼성물산	6,570.0	KINDEX200	-8,980.1	현대차	8,466.5	삼성엔지니어링	-9,485.3
POSCO	5,752.5	TIGER 200	-6,663.5	현대모비스	8,121.0	POSCO	-8,733.5
한국타이어	5,433.6	하나금융지주	-5,181.5	한국타이어	6,951.5	현대중공업	-8,338.9
SK하이닉스	5,174.6	현대차2우B	-4,261.1	제일기획	6,604.6	NHN	-7,712.4
삼성중공업	4,977.3	기아차	-4,238.0	LG유플러스	5,768.7	대림산업	-7,162.4
LG전자	3,204.0	현대모비스	-3,975.3	현대위아	4,951.9	엔씨소프트	-5,244.4
한국전력	2,473.7	LG생활건강	-3,176.7	CJ대한통운	4,887.9	SK이노베이션	-3,686.7
LG화학	2,305.9	삼성SDI	-3,040.6	우리투자증권	4,847.2	한국전력	-3,629.9
은행				보험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삼성전기	1,647.5	KT	-1,911.4	현대모비스	9,684.0	삼성전자	-6,697.5
SK	1,278.4	LG전자	-1,773.6	TIGER 200	7,596.8	KODEX 레버리지	-6,108.2
삼성물산	978.3	SK텔레콤	-1,447.9	현대차2우B	5,016.3	LG전자	-4,897.9
삼성테크윈	747.4	현대모비스	-936.4	삼성물산	3,334.7	NHN	-3,946.5
삼성전자	667.9	현대차	-910.3	POSCO	3,150.6	KB금융	-2,753.0
기아차	649.5	대우증권	-821.0	제일모직	3,038.4	하나투어	-2,701.7
CJ	493.2	LG화학	-731.2	CJ대한통운	2,815.0	SK네트웍스	-2,221.7
LG디스플레이	492.4	동양건설	-621.1	CJ제일제당	2,631.5	LG화학	-2,170.2
SK이노베이션	458.3	KODEX 레버리지	-541.7	대림산업	2,388.7	현대차	-1,710.6
SK하이닉스	451.4	고려아연	-523.4	현대하이스코	2,384.1	대상	-1,384.9

KOSPI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수/매도 상위 종목

(단위: 백만원)

순매수			순매도		
종목	외국인	기관	종목	외국인	기관
KODEX 레버리지	380.3	35,311.1	NHN	4,118.0	20,595.0
CJ대한통운	23,138.9	23,187.8	LG전자	3,168.6	18,119.8
LG디스플레이	2,646.9	10,709.0	에이블씨엔씨	2,770.6	4,372.3
현대모비스	6,395.0	8,217.7	대림산업	1,669.8	4,089.5
호남석유	3,943.2	5,811.3	현대제철	583.0	2,973.6
풍산	343.3	3,083.2	두산중공업	134.2	2,160.3
고려아연	238.3	2,714.2	한진해운	252.9	2,056.3
LS	187.6	2,566.1	삼성테크윈	3,999.2	1,583.8
두산인프라코어	547.0	2,371.7	CJ헬로비전	929.4	1,325.6
현대위아	3,733.5	1,700.0	강원랜드	3,555.1	720.4

*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이며, 그 밖의 외국인은 제외되어 있음

*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도 금액은 (-)를 생략한 수치임

KOSDAQ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종목

(단위: 백만원)

투신				연기금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골프존	2,599.2	컴투스	-4,713.0	서울반도체	2,585.6	CJ E&M	-1,705.0
SK브로드밴드	1,872.9	게임빌	-4,498.1	CJ오쇼핑	2,565.9	파라다이스	-1,688.8
메디톡스	1,149.2	CJ오쇼핑	-3,107.1	셀트리온	1,946.8	컴투스	-1,533.1
서울반도체	940.2	파라다이스	-2,490.6	SBS콘텐츠헤브	1,326.9	STS반도체	-1,322.6
성우하이텍	895.5	KG이니시스	-2,058.0	코오롱생명과학	1,172.5	JCE	-872.2
네오위즈게임즈	723.3	위메이드	-1,548.0	다음	1,103.8	씨젠	-709.5
덕산하이메탈	706.3	이오텍	-1,116.1	로엔	907.5	태광	-555.5
로만손	522.7	에스엠	-1,072.8	와이지엔터테인먼트	853.8	심텍	-436.4
CJ E&M	512.1	에스에프에이	-1,006.1	휴비츠	491.0	서원인텍	-424.1
매일유업	485.0	이엘케이	-891.8	포스코컴텍	434.3	이엔에프테크놀로지	-403.2
은행				보험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이엘케이	436.6	위메이드	-1,050.6	CJ오쇼핑	2,383.0	씨젠	-1,382.3
CJ오쇼핑	391.0	게임빌	-495.7	와이지엔터테인먼트	1,096.0	네오위즈인터넷	-1,172.0
컴투스	259.7	디지털옵틱	-344.8	성광벤드	994.5	KG이니시스	-1,112.8
엘비세미콘	250.0	시그네틱스	-340.2	네패스	759.7	컴투스	-1,063.3
뷰릭스	233.3	와이지엔터테인먼트	-262.4	서울반도체	744.3	게임빌	-930.1
루멘스	193.3	성광벤드	-226.9	와이솔	692.3	파라다이스	-771.1
멜파스	169.8	인프라웨어	-193.0	모두투어	556.4	다음	-696.5
이녹스	132.5	골프존	-159.0	SK브로드밴드	483.6	덕산하이메탈	-461.6
서울반도체	116.5	아이옴	-155.4	디지털옵틱	433.2	파트론	-389.1
솔브레인	110.0	오스코텍	-128.4	조이맥스	411.5	에스맥	-366.0

KOSDAQ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수/매도 상위 종목

(단위: 백만원)

순매수			순매도		
종목	외국인	기관	종목	외국인	기관
서울반도체	317.0	5,330.7	KG이니시스	375.5	4,246.3
셀트리온	136.5	2,696.8	위메이드	667.1	2,621.0
SK브로드밴드	326.9	2,526.9	JCE	126.8	2,593.4
CJ오쇼핑	1,222.9	1,534.7	씨젠	90.1	2,371.7
다음	2,944.0	1,083.7	이오텍	128.2	2,178.4
조이맥스	154.0	919.5	에스엠	464.9	1,273.6
성광벤드	398.7	584.9	CJ E&M	230.4	817.4
미래나노텍	161.7	397.8	태광	208.8	781.7
코텍	284.5	139.7	네오위즈게임즈	7,600.8	321.9
EG	1,523.5	111.2	아바텍	1,430.9	113.6

*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이며, 그 밖의 외국인은 제외되어 있음

*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도 금액은 (-)를 생략한 수치임

당일 선물 시장은 새벽 미 증시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되는 '선물옵션 모닝브리프'를 참조할 것
KDB대우증권 홈페이지(www.kdbdw.com)>투자정보>투자전략>AI/파생

주가지수선물 가격 정보

	KOSPI200	1212	1303	1306	KSPGCH3S
기 준 가 격	254.83	254.90	254.00	255.65	-0.95
시 가	254.58	255.00	254.00	255.65	-0.95
고 가	257.02	257.40	256.40	255.65	-0.90
저 가	254.19	254.65	253.85	255.65	-1.00
종 가	256.63	257.20	256.30	255.65	-0.90
전 일 대 비	1.80	2.30	2.30	-	0.05
이 른 가 격	-	256.81	256.02	257.60	-0.79
총 약 정 수 량 *	60,460	171,016	561	-	2,263
총 약 정 금 액 **	2,836,817	21,903,438	71,692	-	578,030
미 결 제 약 정	-	105170 (1891)	11225 (583)	1162 (0)	-
배 당 지 수 ***	2.85% (CD금리)	0.00	2.62	2.86	-
반 응 배 수		0.97	0.90	-	
장 중 평 균 베 이 시 스		0.467			
전 일 대 비		0.153			

주 : 단위 (* 천주, 계약 ** 백만 *** 포인트)

반응배수 = 일중 선물가격변동폭/일중 현물가격변동폭, KSPGCH3S : 12월물과 3월물과의 스프레드를 의미함
장중 평균 베이스는 1분 평균이며, 만기일일의 경우 전일대비는 직전 최근월물과의 비교이므로 의미없음

주가지수선물 투자자별 매매현황

		외국인	개인	증권	보험	투신	은행	기타법인	연기금
	매 수	73,631	47,282	44,535	304	2,064	693	1,290	1,778
	매 도	70,289	49,231	46,035	474	1,744	644	988	2,172
	비 중	41.9%	28.1%	26.4%	0.2%	1.1%	0.4%	0.7%	1.2%
순 매 수 누 적	전 일	3,342	-1,949	-1,500	-170	320	49	302	-394
	누 적	-2,891	1,039	213	-615	3,668	-1,771	801	-443
매 매 편 향 강 도		2.32%	-2.02%	-1.66%	-21.85%	8.40%	3.66%	13.26%	-9.97%

주 : 누적은 지난 트리플위칭데이 이후부터 현시점까지 당일 순매수 미결제약정의 증감을 누적한 것임

매매편향강도(%)=(순매수/(매수+매도))X100, 절대수치가 클수록 단방향으로의 집중력이 높다는 의미임

ETF 가격정보

	전일대비	등락율	거래량	거래대금	외국인보유		KOSEF	KODEX200
KOSEF	220	0.86%	38	969	0.00%	NAV (ETF-NAV)%	25,724	25,772
KODEX200	175	0.69%	1,531	39,241	5.03%		-0.08%	-0.30%
	KOSEF	KODEX200	합성현물	최근월물	합성선물	T/E	0.00%	0.04%
증가/100	257.05	256.95	257.03	257.20	257.19	설정주수	150	200
eff.delta	1.22	0.97	2.71	1.28	2.70	환매주수	0	1900
diff/basis	0.16%	0.12%	0.16%	0.57	0.56	상장주수	12000	166000

주 1 : effective delta(유효델타) = ETF등 전일대비 증감분/KOSPI200 전일대비 증감분

2 : 합성현물 = (C-P)+X exp[-rt], 합성선물 = (C-P)exp[rt]+X, 거래량, 설정-환매-상장 등의 단위는 천주

3 : 괴리/베이스스 - KOSPI200 대비 괴리율/베이스스, 거래대금의 단위는 백만원

4 : TE(tracking error)=[(NAV/(KOSPI200X100))-1]X100(%)

주가지수옵션 가격정보

대표 내재변동성	0.156	콜평균	0.155	풋평균	0.157	역사적 (5일)	9.7	역사적 (20일)	12.3
월물 행사가격		1212					01301		
		262.5	260.0	257.5	255.0	252.5	260.0	257.5	255.0
Call	가격	0.59	1.21	2.26	3.70	5.60	2.62	3.70	4.75
	전일 대비	0.27	0.49	0.88	1.21	1.65	0.70	0.93	0.95
	내재변동성	15.10	15.40	16.10	16.90	18.60	14.70	15.20	15.10
	거래량	239,724	300,533	230,123	85,309	9,433	3,365	671	1,173
	미결제	34,337	32,328	22,701	22,950	16,035	6,536	2,030	1,864
Put	가격	5.85	4.00	2.57	1.53	0.86	7.55	5.80	4.50
	전일 대비	-2.05	-1.80	-1.48	-1.06	-0.74	-1.20	-1.45	-1.30
	내재변동성	10.20	12.50	13.70	14.50	15.20	13.70	13.30	13.60
	거래량	2,260	7,465	52,932	142,944	161,050	57	248	345
	미결제	1,131	3,911	7,186	17,009	18,394	205	330	421

주 : 역사적 변동성, 내재변동성 등은 CHECK II 단말기를 기준으로 한 것임

주가지수옵션 투자자별 매매현황

Call		외국인	개인	증권	보험	투신	은행	기타법인	연기금
	매수	576,190	397,485	487,889	0	1,024	180	3,034	84
	매도	580,251	393,384	487,362	5	1,229	381	3,220	51
	비중	39.4%	27.0%	33.3%	0.0%	0.1%	0.0%	0.2%	0.0%
순매수 누적	전일	-4,061	4,101	527	-5	-205	-201	-186	33
	누적	11,021	41,845	-49,166	-14	-1,488	-241	-1,918	-33
Put		외국인	개인	증권	보험	투신	은행	기타법인	연기금
	매수	471,328	331,865	299,686	0	275	455	44	8,650
	매도	464,949	322,976	315,428	0	275	325	52	8,298
	비중	42.1%	29.4%	27.7%	0.0%	0.0%	0.0%	0.0%	0.8%
순매수 누적	전일	6,379	8,889	-15,742	0	0	130	-8	352
	누적	26,401	44,443	-67,231	0	30	-489	-179	-2,975

주 : 누적은 직전 옵션만기일 이후부터 당일 순매수 미결제약정 증감을 누적이한 것임.

차익거래 잔고와 프로그램 매매 동향

		주식		주가지수선물		주가지수 CALL옵션		주가지수 PUT옵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차익거래 잔고 (백만원)	최근월물	6,027,656	10,346,953	10,411,243	6,025,259	-	-	-	-
	기타	-	-	-	-	-	-	-	-
	합계	6,027,656	10,346,953	10,411,243	6,025,259	0	0	0	0
		프로그램 매도				프로그램 매수			
		주식 거래량		주식 거래대금		주식 거래량		주식 거래대금	
		수량	비율(%)	금액	비율(%)	수량	비율(%)	금액	비율(%)
프로그램 매매 동향 (백만원)	차익	1,275	0.26	82,829	2.07	2,112	0.44	135,005	3.38
	비차익	20,125	4.16	618,417	15.49	23,442	4.85	722,783	18.10
	합계	21,401	4.43	701,247	17.56	25,554	5.28	857,789	21.48
베이스시스수준		0.775	0.675	0.575	0.475	0.375	0.275	0.175	0.075
차익성 순매수		3025	7890	41076	44089	9653	2312	-5782	-7981

주 : 월요일을 제외한 차익거래 잔고는 1일 지연된 데이터임.

유가증권시장			12/05 (수)	12/04 (화)	12/03 (월)	11/30 (금)	11/29 (목)
가격 및 거래량 지표	코스피지수		1,947.04	1,935.18	1,940.02	1,932.90	1,934.85
	이동평균	5일	1,938.00	1,931.15	1,929.15	1,922.85	1,918.53
		20일	1,906.73	1,906.26	1,905.91	1,904.32	1,903.61
		60일	1,938.47	1,938.10	1,938.00	1,937.02	1,936.04
	이격도	20일	102.11	101.52	101.79	101.50	101.64
		60일	100.44	99.85	100.10	99.79	99.94
	거래량		492,575	294,802	314,887	337,273	388,790
	거래대금		41,494.0	29,300.9	33,912.2	45,372.0	48,559.8
시장지표	거래량 회전율		1.38	0.83	0.88	0.95	1.09
	거래대금 회전율		0.37	0.26	0.30	0.41	0.43
	심리지표		60	50	60	60	60
	ADR		82.86	85.21	86.21	88.02	83.17
	이동평균	20일	83.64	83.48	83.20	82.77	82.68
	VR		89.67	67.45	83.93	88.97	88.85
코스닥시장			12/05 (수)	12/04 (화)	12/03 (월)	11/30 (금)	11/29 (목)
가격 및 거래량 지표	코스닥지수		496.50	502.71	498.97	499.37	496.73
	이동평균	5일	498.86	498.45	496.64	496.09	495.98
		20일	500.54	501.63	502.37	503.18	503.88
		60일	515.12	515.38	515.51	515.64	515.74
	이격도	20일	99.19	100.21	99.32	99.24	98.58
		60일	96.39	97.54	96.79	96.84	96.31
	거래량		430,561	353,742	350,223	368,975	450,374
	거래대금		21,429.5	16,677.5	16,257.6	17,003.9	18,127.1
시장지표	거래량 회전율		2.10	1.69	1.67	1.76	2.15
	거래대금 회전율		1.97	1.52	1.49	1.56	1.67
	심리지표		60	60	60	70	60
	ADR		82.53	82.73	83.90	86.08	84.00
	이동평균	20일	82.80	82.78	82.65	82.36	82.35
	VR		100.88	125.15	128.04	155.26	155.86
자금지표			12/05 (수)	12/04 (화)	12/03 (월)	11/30 (금)	11/29 (목)
국고채 수익률(3년)			2.86	2.84	2.84	2.84	2.83
회사채수익률(무보증3년)AA-			3.32	3.31	3.36	3.37	3.36
원/달러 환율			1,081.50	1,083.40	1,083.10	1,082.90	1,084.10
CALL금리			2.77	2.77	2.72	2.73	2.72
주식형(국내)			-	691,866	692,981	692,675	692,742
주식형(해외)			-	266,512	266,639	266,925	267,177
채권형			-	468,629	467,472	465,950	465,734
고객예탁금			-	176,410	179,080	167,361	170,065
고객예탁금 회전율			-	26.06	28.02	37.27	39.21
순수예탁금 증감			-	-4,327	8,627	-1,796	-2,022
미수금			-	1,058	1,138	1,201	1,208
신용잔고			-	42,606	42,925	43,140	43,064

단위: P, %, 천주, 억원 / 주: 고객 예탁금 회전율 = (거래대금/고객예탁금) x 100